

군산시, 화학안전 체계 구축 나서

환경부·환경책임보험사업단과 '환경오염사고 방재 장비함' 개소식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방재물품 19종 133점 제작·4곳에 분산 설치

군산시(시장 김임준)는 19일 오후 2시 환경부(장관 김원섭),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 및 환경책임보험사업단과 함께 방재 장비함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함께 하는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환경책임보험 사업에 참여하는 보험사로 구성된 사단법인이다.

방재 장비함 구축사업은 지난 2024년 9월에 군산시, 화학물질안전원,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이 맺은 '환경오염 피해예방을 위한 방재 장비함 구축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방재 장비함에는 흡착포, 중화제, 보호장구 등 총 19종 133점(4개소, 총 76종 532점) 방재물품을 갖추었고,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 초기 대응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누구나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특히 방재 장비함에는 환경부의 환경R&D 성과물인 화학물질 유출 및 화재 시 인근 주변 하천으로 오염물질이

흘러들어 가는 걸 신속 차단할 수 있는 수계 유출 차단 블록을 추가했다.

군산시는 이번 개소식 부대 행사로 전북119특수대응단 화학구조대와 함께 유출차단 블록 사용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 누구나 신속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출차단 블록의 작동원리와 사용 방법 등을 직접 시연할 계획이다.

군산시는 화학물질안전원과 함께 △군산시 내 주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밀집 지역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 △방재함의 활용성 및 접근 용이성 등을 고려해 군산국가1·2산단, 군산일반산단 및 새만금국가산단 등 4개소에 각각 분산 설치하였다.

그동안 환경부와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은 이번 환경오염사고 방재 장비함 구축사업과 함께 다양한 환경오염피해 예방사업을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예방사업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환경피해 방지 및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며 △유해 물질

유출 방지 시설 설치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참여 사업장에 대한 자기부담금 지원 사업 등이 있다.

아울러, 환경부와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은 군산시의 환경오염사고 방재 장비함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2025년부터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방재 장비함 설치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방재 장비함 개소식에 바로 이어, 환경부가 임화한 가운데 군산시와 군산국가산업단지·새만금산업단지·군산일반산업단지 입주사업장 일동은 화학사고 최소화 선포식을 연다.

이번 선포식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군산시,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지역 대표 기업체 및 시민사회 단체 모두가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화학사고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짐을 공유하는 자리이다.

참석자들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 지역 내 화학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속 가능한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결의할 계획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대 학생생활관, 녹색건축인증 '우수'

국립군산대학교 학생생활관이 한국생산성본부 인증원이 시행하는 '녹색건축인증'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녹색건축인증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라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 절약형이고 자연 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자재 및 자원, 수자원 관리, 실내환경, 관리, 생태환경, 혁신적 설계 등 8개 영역을 평가해 우수기관에 인증 등급을 부여한다.

2024년 2월 29일 준공한 BTL 2차 생활관은 시공사인 (주)금호건설과의 협의를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성능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건축물의 친환경 성능을 평가받아 국립대학교 건축물에서는 드물게 에너지 절약과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건축물로 10년간 인증(2024. 9. 25~2034. 9. 24.)을 받았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의회, 이종선·박종대 의원 시정질문

마동 주차문제·소라공원 조성사업 등... 현안 점검·대안 마련 요구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가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시정질문을 실시해 시정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첫 번째로 단상에 오른 이종선 의원은 "마동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지만 공공주차장은 늘지 않아 주민들이 주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단순히 인구 숫자를 늘리기보다 '생활인구'를 늘려 최종적으로 인구를 증가시키고 기업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으로 청년층 인구를 유입하는 등 인구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이와 관련한 익산시의 대응책을 요청했다.

또한 "의류수거함이 쓰레기 배출장소에 설치되어 관리가 미흡한 경우 불법 폐기물 투기로 도시미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적정한 이용을 위한 체계를 만들고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업체를 관리·감독하며 시민에게도 이용방법을 홍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정현을 시장은 "시내버스 시간제한, 100원 버스 운영, 노상주차장, 개방주차장 활용 등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마동에 공공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빅데이터를 도입하는 등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 산업구조 흐름에 맞춰 청년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창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의류수거함에 업체와 협조를 통해 불법투기 금지 스티커를 부착하고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은 위치를 변경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질의자로 나선 박종대 의원은 "소라공원 조성사업이 수년째 사업이 진척되지 않아 비공영시설 부지가 방치되고 사업의 목표도 흐트러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향후 추진방향에 관해 질의했다.

이어 "통·리장수 조정은 공동주택 신축 등 지역 여건과 행정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통·리장 분야의 역할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신혼부부·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고도화한 것은 긍정적이나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데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갈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현을 시장은 "소라공원 조성사업은 분양주택의 경우 내년 상반기에 분양하고 임대주택은 토지수용 절차를 마치고 업체선정 등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통·리장수 동결로 인한 문제는 조례를 개정해 체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신혼부부·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최우선 추진방향이어서 예산이 부족할 경우 차등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겠다. 산업구조 흐름에 맞춰 청년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창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지역 소식통

군산시립예술단 합동 연주회

김과장네 크리스마스 뷔페

군산시립합창단과 시립교향악단(지휘: 주광영)이 19일 오후 7시30분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서 합창음악극 '김과장네 크리스마스 뷔페'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가족 간의 갈등과 화합을 주제로, 승진의 문턱에서 좌절하는 아버지 김과장과 취업 준비로 지친 큰아들 사이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현대 가족이 겪는 세대 차이와 소통의 문제를 따뜻하고 진솔한 시선으로 풀어낸다.

크리스마스라는 특별한 배경 속에서 사랑과 용서, 화합의 메시지를 통해 가족 구성원이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하는 과정을 그리며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친숙한 캐롤과 뮤지컬, 영화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곡들이 포함되어 있다.

교향악단의 웅장한 사운드와 합창단의 뮤지컬적 요소가 어우러져 크리스마스를 앞둔 시민들에게 특별한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공연 관련 문의는 군산시립합창단 (063-454-5558)으로 하면 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취약계층 위한 겨울

나눔의 장마련 '훈훈'

취약계층의 건강한 한 끼를 위해 지역 곳곳을 힘차게 누빈 익산시 다리로로 밥차가 올해 운영을 종료하며 겨울 나눔의 장을 마련했다.

익산시는 18일 다리로로 밥차와 나눔공간에서 겨울나기 나눔장터를 진행했다. 다리로로 밥차는 도시락과 함께 떡 사리와 사골국, 갈비탕을 준비해 가정에서도 건강하게 식사를 챙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찾아 가는 보건복지상담실을 운영해 복지 서비스를 안내하고, 간호사가 혈압·혈당 등 건강을 확인한 후 상담을 진행해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이어 나눔공간에서는 취약계층이 추운 날씨에 건강을 잃지 않도록 이불, 내의 등 동절기용품 꾸러미와 부식품이 준비됐다. 물품은 읍면동장 책임제로 발굴된 취약계층 100세대에 전달됐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농기센터,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서 '최우수' 선정

청년후계농 지원·농업인 소득·편의 증진 성과 등 인정

지역 농업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익산시의 노력이 인정받았다.

익산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이 주관한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상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전북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농촌진흥청은 전국 156개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농촌지도사업 전반을 평가해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시는 지역 농업의 미래를 견인할 청년후계농 80명을 선발해 지역사회 관계망 활성화와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했다. 또한 시설하우스와 드론 등 지원 사업으로 청년들의 영농 성과를 이

끌어내 주목을 받았다.

시는 청년후계농 지원뿐만 아니라 원예 분야 농산물 생산 안정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한 성과도 인정받았다.

원예 분야 안정 생산을 위해 △채소 시설 환경 개선 △사과 동상해 방지 △생강고온 피해 예방 등의 사업에 작년 대비 11% 증가한 예산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농촌진흥청 주관 공모사업인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사업'으로 라이시칩, 쌀 카스테라 상품화를 진행했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특산물 육성을 도모해 농산

물의 부가가치 향상과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했다. 아울러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늘봄학교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학생들에게 농업의 가치를 알리고 체험 농장의 수익 창출을 도왔다.

시는 농업인의 편의 증진과 노동력 절감을 위해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망성면에 추가 설치한 임대사업장이 내년 1월 준공을 앞두고 있어 북부권 농업인의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류숙희 농기센터장은 "이번 성과는 전 직원의 노력과 도전으로 이뤄낸 결과"라며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한 농촌지도사업을 펼쳐 농업인 소득 증대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실시

군산시는 18일 군산시청 대강당에서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실링 및 치매인식 개선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미앤미교육컨설팅 백희원 강

사를 초청하여 스트레스가 개인에 미

치는 영향, 스트레스에 대한 관점 변화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종사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왔다. 또한, 군산시 치매안심센터의 치매인식개선 교육을 함께 진행하여, 치매 및 치매 환자의 이해, 치매 환자와 의사소통 방법 등 치매 환자를 돌보는 종사자의 이해도를 높였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